

한·EU FTA 1년의 평가와 전망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차 례 ● ● ●

1. 최근 한·EU 간의 무역·투자 동향
2. 한·EU FTA 발효 1년의 결과
3. 주요 품목별 FTA 효과 분석
4. 한·EU FTA 이후의 경제협력 방향

주요 내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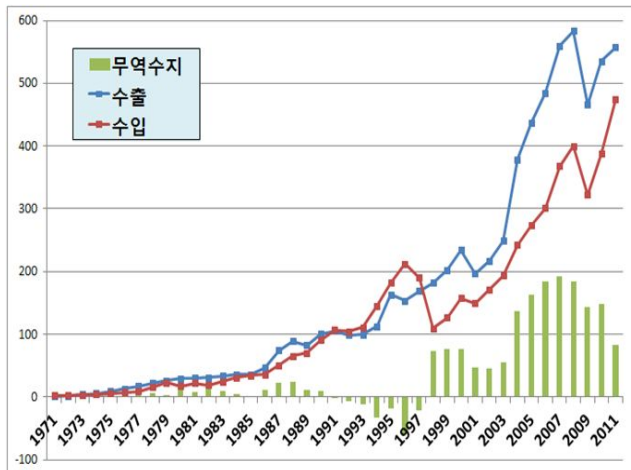
-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對)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한·EU FTA 발효 11개월간 11.5% 감소하였으나, 대EU 수입은 14.8% 증가를 기록함.
 - 대EU 수출감소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EU의 경기침체로 수입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함.
 - 한국의 대EU 수출은 선박, 전자기기, 자동차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문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선박과 전자기기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감소를 주도함.
 - 대EU 수입은 다양한 품목에 걸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급등현상이 나타나 對EU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음.
- ▶ 특혜관세를 적용에 따른 대EU 수출입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세인하가 컸던 품목에서는 수출과 수입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특혜관세를 적용과 관련 없는 품목에서 큰 폭의 수출감소와 수입증가가 나타남.
 - (대EU 수출) 자동차 관련 품목은 관세인하율이 높았고 수출증가도 크게 이루어졌으나 전자·전기 관련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EU의 선박수요 감소에 따라 선박수출도 크게 감소함.
 - (대EU 수입) 관세인하율이 높은 정제석유, 기계 부속품, 가방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낮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육류, 항공기 부문의 수입도 크게 증가함.
- ▶ 거대선진국과의 FTA는 수출증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함.
 - 향후 정책지원의 장기적 초점을 수출확대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치 및 습득을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양측의 무역·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호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EU FTA를 국내규제의 선진화에 활용해야 할 것임.

1. 최근 한·EU 간의 무역·투자 동향

- 대(對)EU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EU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하여 왔음.
- EU는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EU의 제8위 교역국으로 2011년 대EU 무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함.
 - 한·EU FTA 협상 시작시점인 2007년 EU는 한국의 제2교역상대국이었으며, 대EU 무역수지는 191억 달러로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시현지역이었음.
 - 한국의 총무역에서 대EU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7%에서 2011년 9.6%로 감소하였으나, 무역규모 자체는 928억 달러에서 1,032억 달러로 증가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EU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EU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EU의 수입 수요증가가 둔화되었고,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EU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함.

그림 1. 대EU 무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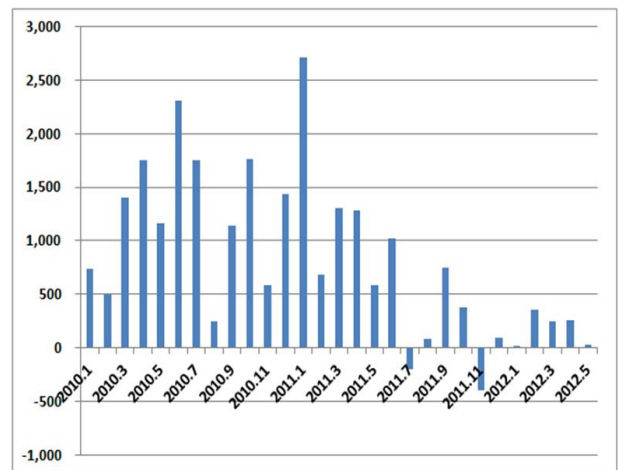
(단위: 1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EU 월별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EU 무역은 서유럽 국가들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대규모의 對서유럽 무역적자와 對동유럽 무역흑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5개국(EU GDP의 55%)과의 무역이 대EU 총무역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유럽 10개국과의 교역은 16%에 불과함.
-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와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대독일 무역수지 적자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기계장비 수입이 많은 데 기인하며, 이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와 같은 만성적인 현상으로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대독일 무역수지: +5.3억 달러(2005년) → -11.9억 달러(2007년) → -34.8억 달러(2009년) → -74.6억 달러(2011년) → -38.2억 달러(2012년 5월까지)

- 대서유럽 수출은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대동유럽 수출은 동유럽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중간재 조달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한국 계열사 간의 기업 내(intra-firm) 무역의 형태인 경우가 많음.
- 대동유럽 수출은 대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 동유럽 → 서유럽' 무역구조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동유럽 현지공장의 서유럽 수출을 포함할 경우 간접적인 對EU 수출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대EU 회원국 무역(上) 및 무역수지(下)(2011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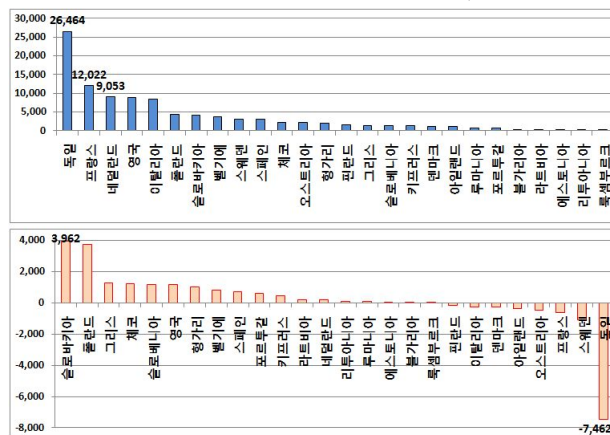


표 2. EU의 대한민국 투자(2005~09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산업	투자	%		산업	투자	%
제조업	식품	93.8	0.5	서비스	도소매유통	2,717.3	14.2
	섬유·의류	50.7	0.3		숙박·외식	151.5	0.8
	종아목재	52.7	0.3		운송	677	3.5
	화학	893.8	4.7		통신	45.1	0.2
	제약	52.1	0.3		금융·은행보험	7,645	40.1
	비금속광물	43.6	0.2		부동산리스	875.3	4.6
	금속	496.3	2.6		비즈니스 서비스	1,588.2	8.3
	기계장비	289.2	1.5		문화·레크레이션	335.3	1.8
	전자전자	1,400	7.3		공공 서비스	84.8	0.4
	운송기계	955.2	5		서비스 총계	14,119	74
	기타	96.7	0.5		전가·가스	540.7	2.8
	제조업	4,424	23.2		상하수도·건설	0.2	0
					농림수산업	0.2	0
					총계	19,084	100

자료: 지식경제부.

표 3. 한국의 대독일, 대슬로바키아 투자(2005~12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업종	투자	비중
독일	1	자동차·트레일러	1,055	50.5%
	2	부동산	683.8	32.7%
	3	섬유(의류제외)	150	7.2%
	4	화학제품	107.7	5.2%
	5	도소매(자동차제외)	92.8	4.4%
슬로바키아	1	자동차·트레일러	715.8	86.5%
	2	전자·통신장비	75.5	9.1%
	3	고무·플라스틱	20.9	2.5%
	4	금속·가공제품	10.1	1.2%
	5	사업서비스	4.8	0.6%

주: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예로 독일과 슬로바키아를 제시

자료: 수출입은행.

■ 한국의 대EU 투자는 투자유치국의 특성(소득수준, 산업특화, 시장규모)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나, 제조업 부문에 집중된 것이 특징임.

- 한국의 대EU 투자는 연평균 20억 달러(2000~11년) 수준이며 2010년 57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서유럽에 대한 투자(연평균 17.4억 달러)가 對동유럽 투자(2.9억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나, 2005~06년에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동유럽 진출로 對동유럽 투자가 對서유럽 투자를 상회하기도 함.
-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동유럽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 부문의 투자임.
 - EU의 대한민국 투자는 서비스 부문에, 한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는 비대칭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양측의 산업 경쟁력 및 주력진출 업종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임.

2. 한·EU FTA 발효 1년의 결과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EU 수출은 2011년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제조업 수출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적 상황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반등을 보였던 대EU 수출은 2011년부터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아세안,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룸.
 - 2012년부터는 대중국, 인도, 일본 수출도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총수출이 감소추세로 전환(표 4 참고)

- 한·EU FTA 발효 이후 11개월(2011. 7~2012. 5) 동안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EU FTA 이행기간 중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대부분의 경우 증가하였는바, 대EU 수출감소는 이례적인 경우임(표 5 참고).

표 4.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변화율)

	2011년				2012년		
	1월	4월	7월	10월	1월	3월	5월
EU	84.1	13.4	-15.4	-20.3	-38	-20.4	-0.5
중국	13.4	9	19.7	14.4	-2.4	-4.2	-4.9
일본	56.6	62.9	37.1	23.4	11.5	2.1	1.5
미국	35.5	17.4	2.4	-3.6	-0.5	27.9	-8.3
인도	54.2	11.6	9.0	-26.8	-14.6	-3.8	8.6
아세안	46.9	37.6	56.3	19.0	7.2	11.4	6.9
MER*	44.5	99.8	135.6	-0.9	-8.8	-1.3	46.9
총수출	44.7	23.5	21.1	7.6	-7.4	-1.5	-0.6

주: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변화(한·EU FTA 이행 기간 2011년 7월 이후)

(단위: 백만 달러)

	2010.7 ~2011.5	2011.7 ~2012.5	증감률
EU	52,774	46,727	-11.5%
중국	114,436	122,361	6.9%
일본	30,930	36,717	18.7%
미국	49,181	54,109	10.0%
인도	11,566	11,520	-0.4%
아세안	56,391	68,569	21.6%
MER*	10,480	11,744	12.1%
총수출	471,916	509,659	8.0%

주: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EU 수출 둔화와 감소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니며 2012년부터는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대EU 수출이 감소를 기록함.
- 2011년에는 한국의 대EU 수출감소(전년대비 -8%)가 두드러졌으나(표 6 참고), 2012년부터는 다른 국가들의 대EU 수출감소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함.
- 유럽통계청(Eurostat)의 수입통계를 살펴보면 한·EU FTA 발효 이후 9개월(2011. 7~2012. 3) 동안 한국(-5.7%)뿐만 아니라, 중국(-3.2%), 일본(-2.5%) 대만(-12.3%)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대EU 수출감소를 기록함(표 7 참고).

표 6. 주요국의 대EU 수출 추이

(단위: 1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0~11년 변화
한국	413	395	323	392	361	-8.0%
중국	2,326	2,479	2,142	2,825	2,921	3.4%
일본	784	750	570	658	675	2.5%
대만	260	241	179	241	240	-0.6%
인도	266	295	254	332	393	18.3%
미국	1,741	1,795	1,519	1,704	1,842	8.1%
역외*	25,961	26,444	21,288	24,684	27,181	10.1%

주: * 역외는 비EU 회원국의 對EU 총수출을 의미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2년 7월.

표 7. 주요국의 대EU 수출 추이
(2011년 7월~2012년 3월)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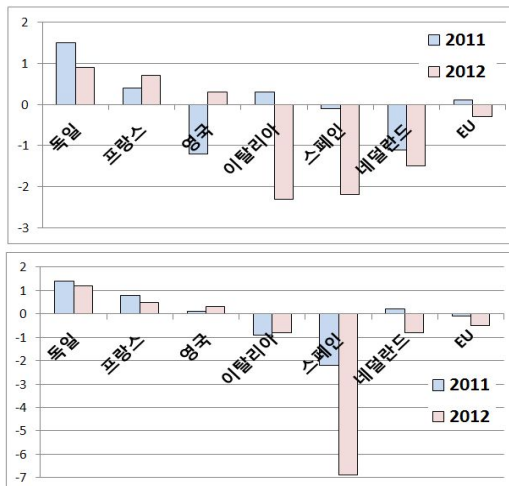
	2010.7 ~2011.3	2011.7 ~2012.3	증감률*
한국	290.6	274.2	-5.7%
중국	2,288.9	2,216.1	-3.2%
일본	525.9	512.7	-2.5%
대만	194.1	170.3	-12.3%
인도	273.4	285.4	4.4%
미국	1,372	1,471.7	7.3%
역외	12,314.9	13,115.1	6.5%

주: * 한·EU FTA 발효 9개월과 전년도 동기간 대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2년 7월.

■ 대EU 수출감소는 EU 회원국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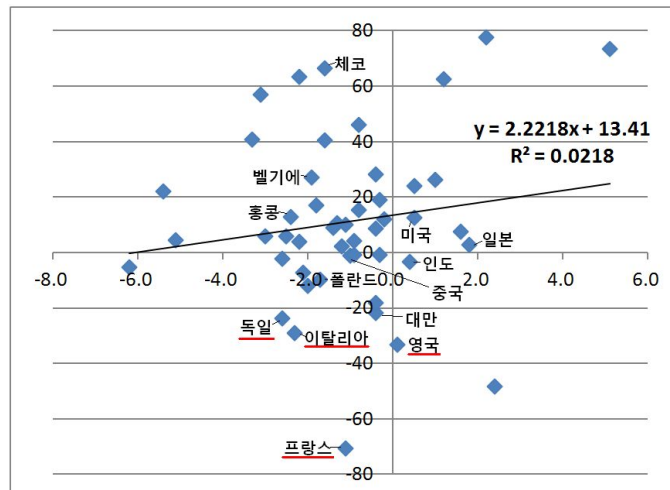
- 재정위기로 인한 공공부문의 긴축과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은 소비와 투자를 압박하고 있어 소비·생산·고용 등 실물지표는 뚜렷한 개선의 징후가 불분명함.
- 2012년 1/4분기 EU 27개국 중 13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EU 총 GDP의 65%)의 성장률도 -0.7~0.0%에 불과한 상황임.
- 2012년 민간소비·정부투자·투자 등의 주요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실업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무역상대국의 경기변동과 대체적으로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EU 주요국의 민간소비(上) 및
정부소비(下) 변화율(전년대비)



자료: EU 집행위원회(2012.5).

그림 5. 한국의 수출변화율(세로축)과 경제성장률
변화(가로축)와의 상관관계



주: 1) 가로축은 경기변동(2012년의 GDP 성장률-2011년 GDP 성장률), 세로축은 2012년 1~5월의 전년동기대비 수출변화율을 의미.
 2) 한국의 50대 수출대상국(총수출의 94%)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IMF(WEO 2012. 4)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 이에 반해 한국의 경기는 비교적 양호하여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對EU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한국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한·EU FTA의 발효 이후에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3% 증가를 기록함.
- 한·EU FTA 발효 이후 11개월 동안 對EU 수입은 14.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추세와 부합하는 결과임.

표 8. 연도별 한국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증감률
중국	71,572	86,432	20.8%
미국	64,295	68,320	6.3%
일본	40,402	44,570	10.3%
EU	38,721	47,426	22.5%
아세안	44,099	53,119	20.5%
MER	5,542	7,517	35.6%
인도	5,675	7,892	39.1%
전체	425,212	524,413	23.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9. 한·EU FTA 이행기간 중 한국의 수입 추이
(2011년 7월~2012년 5월)

(단위: 백만 달러)

	2010.7 ~2011.5	2011.7 ~2012.5	증감률
중국	73,517	77,269	5.1%
미국	61,469	61,735	0.4%
일본	38,502	41,956	9.0%
EU	39,276	45,086	14.8%
아세안	44,425	48,813	9.9%
MER	6,289	7,426	18.1%
인도	6,043	6,697	10.8%
전체	434,848	488,421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주요 품목별 FTA 효과 분석

가. 품목별 수출입 변화

- 대EU 수출변화를 품목별로 측정하기 위해 30대 수출입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수출입 증가율과 EU와 한국의 동일품목 수입증가율을 비교하였음.
 - 대EU 수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수출량을 기준으로 30대 수출품목(HS 4단위, 대EU 총수출의 76%)을 선정한 후 품목별 대EU 수출증가율을 EU의 동일품목 수입증가율과 비교함.
 - 해당품목에서 EU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품목별 시장불황), 동 품목의 대EU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추세에 상응하는 결과이나 수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한국의 대EU 수출이 증가했더라도 EU의 동일품목 수입이 증가하였다면 양 증감률 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대 EU 수출성가를 판단할 수 있음.
 - 대EU 수입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0대 품목(HS 4단위, 대EU 총수입의 49%)을 선정하였으며, 품목별 대EU 수입 증가율을 한국의 동일품목 수입증가율과 비교하였음.
 - EU에 비해 한국의 경기여건이 좋아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EU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증가율이 한국의 동일품목 수입증가율보다 큰 경우 FTA의 수입효과가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정제유, 합성수지 및 관련제품, 기계류의 대EU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 무선통신, 가전사무용 전자기기 등의 수출은 크게 감소함.
 - 자동차 및 관련부품(HS87, 총수출의 17%)은 EU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30% 내외의 수출증가를 기록했으나, 총수출의 38%를 차지하는 선박(HS89), 전자기기(HS85)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감소를 주도함.

- EU의 선박시장은 2008년 이후 수주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40% 이상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기기 관련 수입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EU 수출감소와 대조를 이룸.

※ 선박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22.4%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1%와 2.7%에 불과

- 품목별 대EU 수출변화를 EU의 품목별 수입변화와 비교(표 11의 ①-② 및 성과 항목)한 결과,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EU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평균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배터리, 공구류, 엔진부속품은 EU의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타이어, 하역용 장비, 합성수자섬유류, 광케이블, 순환용 후드 등은 EU의 동 품목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증가를 기록함.
- 선박과 집적회로는 대EU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EU의 동 품목 수출도 이에 상응하게 감소하고 있어 평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LCD, 무선전화기, 라디오·TV·카메라 부품 등은 EU의 역외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EU 수출은 감소하고 있어 수출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됨.

표 11. 대EU 30대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 비교

HS 코드	비중 (2011년)	수출	2010.7 ~2011.5	2011.7 ~2012.5	① 증감(%)	② EU 총수입 증감 (%)	상대수출증감률 (①-②)	성과
	100	對EU 총수출	52,774	46,727	-11.5	9.5		
8901	17.9	선박	11,753	7,156	-39.1	-40.2	1.1	△
8703	10.2	자동차	3,541	5,129	44.8	5.6	39.2	OO
8708	6.2	자동차 부품	2,995	3,335	11.4	14.8	-3.4	X
9013	5.9	액정 디바이스(LCD)	3,896	3,060	-21.5	15.9	-37.4	XX
2710	5.3	정제석유	2,246	2,891	28.7	29.2	-0.5	△
8517	4.6	무선전화기	3,355	1,982	-40.9	5.8	-46.7	XX
8905	4.6	특수선박(준설선 등)	2,323	323	-86.1	-29.5	-56.6	XX
8529	3.0	라디오·TV·카메라 부품	1,779	1,418	-20.3	23.1	-43.4	XX
8541	1.7	반도체 디바이스	1,430	583	-59.2	19.9	-79.1	XX
4011	1.5	타이어	674	794	17.8	-21.8	39.6	O
8542	1.4	전자집적회로	913	679	-25.6	-24.2	-1.4	△
7210	1.4	철강판	704	702	-0.3	32.7	-33.0	XX
8473	1.1	사무용기계 부속	852	449	-47.3	-2.0	-45.3	XX
8471	1.0	광학식 자료처리기기	620	492	-20.6	7.7	-28.3	X
8429	1.0	하역용 중장비	402	523	30.1	-4.1	34.2	OO
3907	1.0	폴리아세탈 수지	447	463	3.6	-0.7	4.3	O
8431	0.7	폴리테클 호이스트 부속	276	343	24.3	24.7	-0.4	△
8479	0.7	기타 기계류	332	332	0.0	11.3	-11.3	X
7219	0.6	스테인리스 강판제품	372	275	-26.1	-55.6	29.5	O
9001	0.6	광섬유 케이블	331	356	7.6	-9.7	17.3	O
8443	0.6	복사기·팩스 부분품	312	305	-2.2	20.4	-22.6	X
3903	0.6	스티렌	302	286	-5.3	11.4	-16.7	X
5503	0.6	합성스테이플 섬유	256	286	11.7	-2.7	14.4	O
8507	0.6	배터리	206	296	43.7	18.6	25.1	O
8528	0.5	모니터·프로젝터	329	249	-24.3	6.3	-30.6	XX
8418	0.5	냉장고	287	252	-12.2	13.5	-25.7	X

표 11. 계속

HS 코드	비중 (2011년)	수출	2010.7 ~2011.5	2011.7 ~2012.5	① 증감(%)	② EU 총수입 증감 (%)	상대수출증감률 (①-②)	성과
4002	0.5	합성고무류	204	265	29.9	37.2	-7.3	X
8207	0.5	공구류	187	267	42.8	8.0	34.8	OO
8414	0.5	순환용 후드	196	262	33.7	-1.5	35.2	OO
8409	0.5	엔진 부속품	178	296	66.3	4.0	62.3	OO
	75.8	30대 품목 합계	41,698	34,049	-18.3	1.5		

주: 1) 가독성을 위해 품목명은 단순화하였으며 자세한 명칭은 HS 코드를 참고할 것

2) '① 증감' 은 한EU FTA 발효 11개월 기간(2011년 7월~2012년 5월)과 2010년 7월~2011년 5월 사이의 수출변화율

3) '② EU 총수입 증감' 은 한EU FTA 발효 9개월 기간(2011년 7월~2012년 3월)과 2010년 7월~2011년 3월 사이의 EU 역외수입 변화율

4) '상대수출증감률(①-②)' 은 다음과 같이 구분: 크게 증가(30% 이상, OO), 증가(3~30%, O), 담보(-3~3%, △), 감소(-3~-30%, X), 크게 감소(-30% 미만, XX)

5) 한국의 대EU 수출과 EU의 수입증가 비교기간이 다른 이유는 유럽통계청의 최신자료가 2012년 3월까지인 데 기인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럽통계청(Eurostat), 2012년 7월 통계

■ 대EU 수입은 수출에 비해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품목의 경우 신규 수입 또는 수입급증 현상이 나타남.

- 항공기, 자동차를 비롯하여 정밀장비의 부품부터 가방류, 고기류, 의약품, 원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수입이 전무하던 적든 원유와 정제석유의 경우 수입급증 현상이 나타남.

※ 2011년 하반기 A380(대당 수입단가 2.35억 달러) 4대 신규수입으로 대EU 항공기 수입이 급증

※ FTA에 따른 관세(3%) 즉시철폐 효과와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도입선의 변화(두바이유→브렌트유)로 북해산 브렌트유 신규수입

- 대EU 수입변화와 한국의 총수입 변화를 비교할 경우 항공기, 원유 및 정제석유, 가방류, 중장비 또는 정밀기기 부품 등에서 대EU 수입이 품목별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함.

○ 자동차 및 철강스크랩, 펌프장비, 의료장비, 화장품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총수입 증가량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반도체 생산장비와 의약품은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입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선전화기 및 자동차 부품, 일부 기계류 및 부품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대EU 30대 수입품목의 수입증가율 비교

HS 코드	비중 (2011년)	수출	2010.7 ~2011.5	2011.7 ~2012.5	① 증감(%)	② 한국 총수입 증감(%)	①-②	성과
	100	대EU 총수입	39,276	45,086	14.8	12.3		
8703	5.7	자동차	2,264	2,531	11.8	11.2	0.6	△
8486	5.2	반도체 생산장비	2,264	2,380	5.1	15.8	-10.7	X
3004	3.0	의약품	1,232	1,376	11.7	13.1	-1.4	△
8802	2.8	항공기	119	975	719.3	55.3	664.0	OO
8708	2.5	자동차 부품	1,035	955	-7.7	-3.8	-3.9	X
8479	2.1	기타 기계류	991	835	-15.7	-13.4	-2.3	△
8517	2.0	무선전화기	634	463	-27.0	-13.6	-13.4	X
8542	1.9	전자집적회로	902	849	-5.9	0.7	-6.6	X
8409	1.8	엔진 부속품	671	783	16.7	10.7	6.0	O
4202	1.7	가방케이스류	627	774	23.4	17.9	5.5	O
2710	1.5	정제석유	503	938	86.5	25.1	61.4	OO
7204	1.5	철강스크랩	443	570	28.7	24.3	4.4	△

표 12. 계속

HS 코드	비중 (2011년)	수출	2010.7 ~2011.5	2011.7 ~2012.5	① 증감(%)	② 한국 총수입 증감(%)	①-②	성과
8414	1.3	순환용 후드	710	540	-23.9	-4.5	-19.4	X
8413	1.3	액체펌프류	488	589	20.7	19.5	1.2	△
8483	1.3	전동전달 관련부품	460	628	36.5	17.6	18.9	O
0203	1.3	돼지고기	356	606	70.2	45.7	24.5	OO
8481	1.2	유압관련 장치	454	603	32.8	20.8	12.0	O
9031	1.1	측정기기	460	454	-1.3	4.1	-5.4	X
8408	1.1	디젤엔진	429	494	15.2	16.7	-1.5	△
3002	0.9	혈액관련 의약품	389	376	-3.3	15.3	-18.6	X
8487	0.8	기계류 부품	393	270	-31.3	-15.0	-16.3	X
9018	0.8	수술용기기	327	338	3.4	0.2	3.2	O
3304	0.8	화장품	307	340	10.7	8.8	1.9	△
8421	0.8	청정기	278	341	22.7	15.6	7.1	O
2709	0.7	원유	0	1,568	-	30.0	-	OO
9032	0.7	자동제어기기	283	308	8.8	9.8	-1.0	△
8419	0.7	가열처리기기	316	318	0.6	8.1	-7.5	X
8538	0.7	전기회로 개폐보호부품	268	291	8.6	-0.3	8.9	O
8501	0.7	발전기	271	286	5.5	-2.5	8.0	O
8471	0.7	광학식 자료처리기기	247	301	21.9	-0.2	22.1	OO
	48.6	30대 품목 합계	18,121	22,080	21.8			

주: 1) 가독성을 위해 품목명은 단순화하였으며 자세한 명칭은 HS 코드를 참고할 것

2) ① 증감은 한·EU FTA 발효 11개월 기간(2011년 7월~2012년 5월)과 2010년 7월~2011년 5월 사이의 수입변화율이며, ② 한국 총수입 증감은 같은 기간 한국의 품목별 수입변화율임

3) '상대수입증감률(①-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크게 증가(20% 이상, OO), 증가(3~20%, O), 답보(-3~3%, △), 감소(-20~-3%, X), 크게 감소(-20% 미만, XX).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럽통계청(Eurostat), 2012년 7월 통계

나. 특혜관세를 적용에 따른 대EU 수출입변화

■ FTA의 효과를 품목별(HS 4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한·EU FTA의 관세인하율과 이행기간 11개월간의 상대적 수출입 증감률을 비교함.

- EU의 수입기준관세와 발효 1년차의 한·EU FTA 실행관세 차이를 관세인하율*로 볼 수 있으며, 이 관세인하율이 클수록 수출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부록 참고).

* 기준관세 - FTA 1년차 실행관세 = 관세인하율

- 한·EU FTA 발효 이후 품목별 대EU 수출증가율에서 한국의 동 품목 수출증가율을 차감하여 '상대수출증감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FTA 효과를 판단하였음.

○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한국의 품목별 대EU 수출증감률에서 ② EU의 품목별 총수입증감률을 차감한 후, 이를 '상대수출증감률'로 규정. 측정값이 클수록 한국의 대EU 수출성고가 좋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FTA의 수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별 대EU 수입증가율에서 한국의 동 품목 총수입 증가율을 차감하여 '상대수입증감률'을 계산함.

○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한국의 품목별 대EU 수입증감과 ② 한국의 품목별 총수입 증감을 비교해 봄으로써 FTA 발효 이후 EU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성고를 판단함.

1) 대EU 수출변화

■ 전반적으로 운송장비 관련 품목은 관세인하율이 높았고 수출증가도 크게 이루어졌으나 전자전기 관련 제품은 관세인하율과 상관없이 수출이 크게 감소함.

- 관세인하율이 높은 자동차, 공구류 등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타이어, 엔진부속품 등도 큰 폭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여 한·EU FTA의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관세인하율: 2.7%)와 엔진부속품(2.4%), 공구류(2.7%), 타이어(1.3%)의 대EU 수출은 17~66%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정제석유(3.9%)와 자동차부품(3.8%)도 29%와 11%의 수출증가를 기록함.

※ 다만 정제석유와 자동차부품은 EU의 동 부문 수입이 각각 29%, 15% 증가하여 한국의 대EU 상대수출증가율은 미미함.

- 라디오·TV·카메라 부품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액정다이오스, 모니터·프로젝터 등도 큰 폭의 수출감소를 기록함.

○ 상술한 품목에서는 다음 사실에 대한 주지가 필요함: ① EU의 수입수요가 증가(6~23%)한 반면, 한국의 대EU 수출은 감소(-37~-20%), ② 중국의 동 부문 대EU 수출은 증가추세이며, 대만과 일본 또한 현상유지 또는 수출증가에 성공, ③ 한국의 동 품목 총수출은 감소추세임.

※ 중국의 대EU 수출변화율(2011년 7월~2012년 4월간 10개월, 전년동기대비 %): 액정다이오스(+107%), 라디오·TV·카메라 부품(+380%), 모니터프로젝터(-11%), 유럽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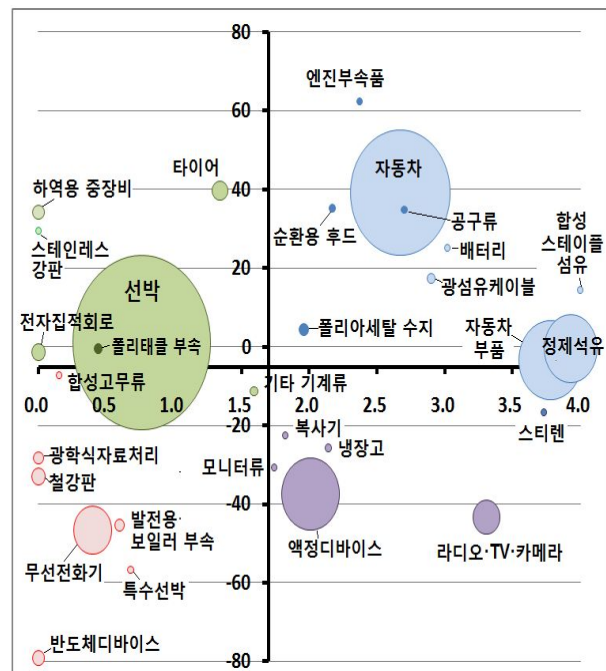
표 13. FTA 관세인하율에 따른 대EU 상대수출증감률¹⁾ 비교

	관 세 인 하 율 ¹⁾			
		미미(1% 미만)	보통(1~2.5%)	큼(2.5% 이상)
상대수출증감률 ²⁾	크게 증가(30% 이상)	·하역용 중장비	·타이어 ·순환용 후드 ·엔진부속품	·자동차 ·공구류
	증가(3~30%)	·스테인리스 강판제품	·폴리아세탈 수지	·광섬유케이블 ·합성스테이플 섬유 ·배터리
	담보(-3~3%)	·선박 ·전자집적회로 ·폴리테트라에틸렌 부속	-	·자동차부품 ·정제석유
	감소(-30~-3%)	·광학식 자료처리기기 ·합성고무류	·기타 기계류 ·복사기 ·스부품 ·냉장고	·스티렌
	크게 감소(-30% 이하)	·무선전화기 ·특수선박 ·반도체다이오스 ·철강판 ·발전용보일러 부속	·액정다이오스 ·모니터프로젝터	·라디오·TV·카메라

주: 1) 관세인하율은 품목별(HS 4단위) EU의 기준관세율과 한·EU FTA의 특혜관세율의 차이. 관세인하율이 클수록 FTA를 통한 관세인하효과가 큰 것을 의미

2) 대EU 상대수출증감률은 한·EU FTA 이행기간('11년 7월~'12년 5월) 중 품목별 대EU 수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과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의 차이. [표 11]의 ①-②와 같음.

그림 6. FTA 관세인하율(가로축)에 따른 대EU 상대수출증감률(세로축)



주: 1) 원의 크기는 FTA 발효 이후 대EU 수출량을 의미

2) 품목별 자세한 명칭은 [표 11]의 HS 코드를 참고

3) 품목별 관세인하율은 부록을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EU FTA 협정문 관세양허표.

-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동 부문에서 대EU 수출감소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약화 또는 아웃소싱 증가(예: 대중국 생산기지 이전)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출이 크게 감소한 무선전화기, 반도체디바이스는 본래 EU의 수입관세가 0에 가까워 FTA의 직접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EU 국가의 불황과 한국기업의 아웃소싱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일본의 대EU 무선전화기 수출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중국의 동 품목 대EU 수출은 크게 증가함.
 - ※ 동아시아 주요국의 대EU 무선전화기(HS8541) 수출변화율(2011년 7월~2012년 4월간 10개월, 전년동기대비 %): 한국(-53%), 대만(-19%), 일본(67%), 중국(+40%), 유럽통계청 자료.
- 선박은 금액규모에서 가장 큰 폭의 수출감소를 기록했으나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EU의 선박수입 자체가 크게 감소하여 상대수출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남.

2) 대EU 수입변화

■ 30대 주요 품목에서 한국의 대EU 관세인하율은 EU의 대한민국 관세인하율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며,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가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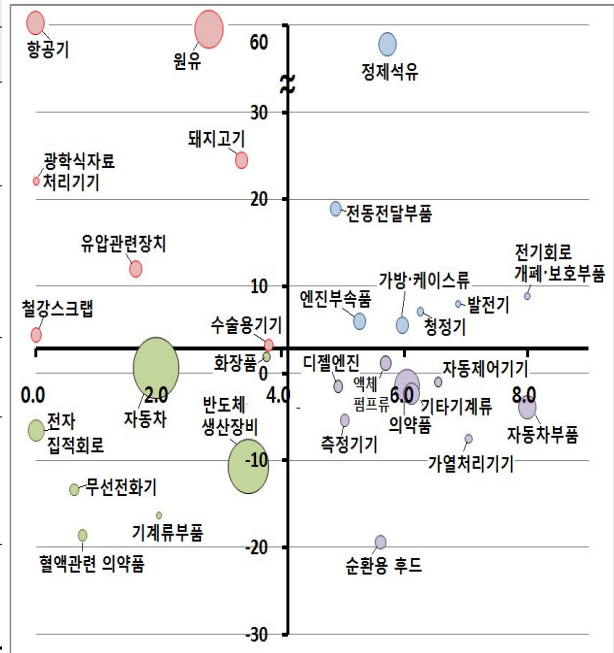
- 관세인하율이 높은 품목 중에는 정제석유, 부속품과 같은 중간재와 가방류 같은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육류, 항공기 부문도 큰 폭의 수입증가를 기록함.
 - 정제석유(관세인하율: 5.4%)와 엔진부속품(5.3%), 청정기(6.3%), 전동전달 부품(4.9%)은 16~87%의 큰 폭의 수입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가방류(6.0%)도 수입이 23% 증가함.
 - 원유는 관세인하폭이 3%이나 수입선의 전환(두바이유→브렌트유)이 이루어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도 관세인하폭은 3.3%에 불과하나 70%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음.
 - 항공기 수입은 2011년 말 A380 구매로 전년대비 700% 이상의 수입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애당초 기본관세율이 0%에 가깝고 항공기 구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입증가를 FTA의 효과로 보기는 어려움.
- 자동차 부품 및 기계류는 큰 폭의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였으며 완성차 수입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추세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큰 폭의 관세인하(8.0%)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의 대EU 수입은 오히려 감소(-7.7%)하였으며, 반도체생산장비 및 자동제어기기, 가열처리기기, 기타 기계류의 수입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추세에 못 미쳐 FTA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판단됨.
 - 대EU 자동차 수입은 11.8% 증가하여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9.5%)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증가율(45%)에는 현저히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남.

표 14. FTA 관세인하율에 따른 대EU 상대수입증감률¹⁾ 비교

상대수출증감률	관세인하율 ¹⁾			
		미미 (3% 미만)	보통 (3~5%)	큼 (5% 이상)
	크게 증가 (20% 이상)	·항공기 ·광학식 자료처리	·돼지고기 ·원유	·정제석유
	증가 (3~20%)	·철강 스크랩 ·유압관련장치	·전동전달 관련부품 ·수술용 기기	·가방·케이스류 ·엔진 부품 ·청정기 ·전기회로개폐 ·보호부품 ·발전기
	담보 (-3~3%)	·자동차	·디젤엔진 ·화장품	·의약품 ·액체펌프류 ·자동차제어기기
	감소 (-20~ -3%)	·무선전화기 ·전자집적회로 ·기계류 부품 ·혈액관련제품	·반도체 생산장비	·자동차부품 ·기타 기계류 ·순환용 후드 ·측정기기 ·가열처리기기
	크게 감소 (-20% 이하)			

주: 1) 관세인하율은 품목별(HS 4단위) 한국의 기준관세율과 한·EU FTA의 특혜관세율의 차이. 관세인하율이 클수록 FTA를 통한 관세인하효과가 큰 것을 의미.
2) 대EU 상대수입증감률은 한·EU FTA 이행기간(2011년 7월~2012년 5월) 중 품목별 대EU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과 한국의 총수입 증가율의 차이. [표 12]의 ①-②와 같음.

그림 7. FTA 관세인하율(가로축)에 따른 대EU 상대수입증감률(세로축)



주: 1) 원의 크기는 FTA 발효 이후 대EU 수입량을 의미
2) 품목별 자세한 명칭은 [표 11]의 HS 코드를 참고.
3) 품목별 관세인하율은 부록을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EU FTA 협정문 관세양허표.

5. 한·EU FTA 이후의 경제협력 방향

- 한·EU FTA 발효 이후 대EU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거대선진국과의 FTA는 수출증가와 같은 단기적 성과 외에도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가, 생산성 향상 및 수출경쟁력 유지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목표가 필요함.
- 한·EU FTA 이행 이후 EU의 경기침체와 대EU 수출품목의 편중성으로 인해 수출증가는 기대에 못 미치나 관세인하폭이 크고, 국내 대규모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품목은 큰 폭의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남.
- 다양한 품목(원자재, 중간재, 소비자재)에 걸친 대EU 수입증가는 무역수지가 악화의 원인이 되었으나,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독일로부터의 중간재(설비장비·부품류) 수입증가는 국내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지며, 원유 및 육류수입 증가는 소비자 후생증가의 대표적인 예임.
- EU는 인도 및 아세안 회원국과 FTA를 협상 중이며, 일본과의 FTA 협상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EU FTA를 통한 시장선점을 강화한 후 향후 거래선 유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필요로 있음.
- 선진국과의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지원의 장기적 초점을 수출확대에서 기술협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

- EU 지역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대EU 수출증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책지원을 수출증대를 위한 교역 협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선진국의 FTA 확대정책으로 관세인하가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습득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함.
- 기술협력의 활성화는 선진국과의 FTA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인바, 한국과 EU 간에 국제기술이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발굴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아 계약교섭 및 기술도입, 기술 실시 및 전개 등 전 과정을 독자적인 힘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상당수 기술협력은 투자유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투자여건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또한 필요함.

■ 양측의 무역·투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호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규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한·EU FTA를 국내규제의 선진화에 활용해야 할 것임.

- 한·EU FTA는 EU가 제3국과 부문별 비관세장벽 철폐와 규제협의를 명시한 최초의 FTA인바, EU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는 가전제품, 자동차, 제약 및 의료장비, 화학 부문에서 규제와 기준의 차이에 의한 무역저해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상호인정과 향후 실무그룹을 통한 규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EU의 규제가 더 파급력이 크며(적용국가 및 규제수준), 수출지향 경제인 한국의 특성상 국내규제를 고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정 수준의 규제협력을 통해 선진규제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산업계의 준비와 적응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규제주권의 확보와 대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EU 측에 대한 한국 측 규제의 수용 및 예외인정 요구도 강화해야 할 것임. **KIEP**

부록

부록 표 1. EU와 한국의 수입관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1년차 관세인하율

한국의 대EU 30대 수출품목에 대한 EU의 수입관세					대EU 30대 수입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				
HS 4단위	품목	기본 관세 (①)	한·EU FTA 발효 1년차 실행관세 (②)	관세 인하율 (①-②)	HS 4단위	품목	기본 관세 (①)	한·EU FTA 발효 1년차 실행관세 (②)	관세 인하율 (①-②)
5503	합성스테이프섬유	4.0	0.0	4.0	8708	자동차부품	8.0	0.0	8.0
2710	정제석유	3.9	0.0	3.9	8538	전기회로 개폐, 보호부품	8.0	0.0	8.0
8708	자동차부품	3.8	0.0	3.8	8419	가열처리기기	7.3	0.2	7.0
3903	스티렌	4.6	0.9	3.7	8501	발전기	7.5	0.6	6.9
8529	라디오TV카메라	3.3	0.0	3.3	9032	자동제어기기	6.6	0.0	6.6
8507	배터리	3.0	0.0	3.0	8421	청정기	7.2	0.9	6.3
9001	광섬유케이블	2.9	0.0	2.9	8479	기타 기계류	7.6	1.4	6.1
8207	공구류	2.7	0.0	2.7	3004	의약품	8.0	2.0	6.0
8703	자동차	9.8	7.1	2.7	4202	가방, 케이스류	8.0	2.0	6.0
8409	엔진부속품	2.4	0.0	2.4	8413	액체펌프류	8.0	2.3	5.7
8414	순환용 후드	2.2	0.0	2.2	8414	순환용 후드	7.9	2.3	5.6
8418	냉장고	2.1	0.0	2.1	2710	정제석유	5.9	0.4	5.4
9013	액정디바이스	2.0	0.0	2.0	8409	엔진 부속품	7.5	2.2	5.3
3907	폴리아세탈수지	2.6	0.6	2.0	9031	측정기기	5.0	0.0	5.0
8443	복사기, 팩스부분품	1.8	0.0	1.8	8408	디젤엔진	7.0	2.1	4.9
8528	모니터, 프로젝터	9.3	7.6	1.7	8483	전동전달 관련부품	6.3	1.5	4.9
8479	기타 기계류	1.6	0.0	1.6	9018	수술용기기	8.0	4.2	3.8
4011	타이어	4.2	2.9	1.3	3304	화장품	8.0	4.2	3.8
8901	선박	0.8	0.0	0.8	8486	반도체생산장비	4.2	0.7	3.5
8905	특수선박	0.7	0.0	0.7	0231	돼지고기	23.8	20.4	3.3
8473	발전용/보일러 기계 부속	0.6	0.0	0.6	2709	원유	3.0	0.0	3.0
8431	폴리태클 호이스트부속	0.4	0.0	0.4	8487	기계류 부품	8.0	6.0	2.0
8517	무선전화기	0.9	0.5	0.4	8703	자동차	8.0	6.1	2.0
4002	합성고무류	0.2	0.0	0.2	8481	유압관련장치	8.0	6.4	1.6
8541	반도체디바이스	0.0	0.0	0.0	3002	혈액관련제품	0.8	0.0	0.8
8542	전자집적회로	0.0	0.0	0.0	8517	무선전화기	0.6	0.0	0.6
7210	철강판	0.0	0.0	0.0	8802	항공기	0.0	0.0	0.0
8471	광학식 자료처리기기	0.0	0.0	0.0	8542	전자집적회로	0.0	0.0	0.0
8429	하역용 중장비	0.0	0.0	0.0	7204	철강스크랩	0.0	0.0	0.0
7219	스테인리스강판제품	0.0	0.0	0.0	8471	광학식자료처리기기	0.0	0.0	0.0

주: 1) EU의 수입관세는 HS8단위 관세율을 구한 후 HS4 단위의 단순평균 관세율을 산정하였으며, 한국의 수입관세는 HS10 단위 관세율을 구한 후, HS4단위의 단순평균 관세율을 산정.

자료: Trade Navi(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한·EU FTA 관세양허표.